

# 전쟁 없는 평화세계를 후대에 유산으로! 'DPCW' 평화의 답 되다!

## 지난 25일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대회' 열려 평화 염원하는 전 세계 시민, 193개국에 '피스레터' 답신 촉구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 전경.

▲25일 광주 시민공원에서 HWPL이 주최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 시민들이 참석했다.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193개 유엔(UN)회원국 국가원수에게 작성한 '평화의 손편지(피스레터)'의 답신을 촉구하며 전 세계 시민들이 결집했다.

세계평화선언문(HPWL·대표 이만희)이 주최하고 세계여성평화그룹(WWPG)과 국제청년평화그룹(IPYG)이 공동주관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대회'가 지난 25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동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UN에 결의안으로 상정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국가 원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것에 목표를 두고 '피스레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각 국가 원수에게 피스레터를 발송한 것에 대한 답신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이만희 HWPL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 땅과 민족이 양

단된 채 60여 년이 흘러왔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평화 통일'이라며 "우리는 이같이 복잡한 세상이 아니라 전쟁 없는 평화 세계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 그만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살리는 일은 바로 전쟁이 종식되어 세계평화를 이루는 일이며 그 답은 DPCW 10조 38항이다. 우리가 할 일은 평화의 일이라고 확신한다. 누구나 다 이 일에는 협조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국 모든 대통령들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DPCW 10조 38항에 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현숙 WWPG 대표는 "세계평화선언문은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세계 최초의 선언문"이라며 "DPCW가 구속력 있는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은 국약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지구촌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진정한 해답과 국민들

이 에타게 소망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지체성 HWPL 광주전남지부 이사는 "우리는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화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지구촌에 전쟁이 있어야 되겠는가. 전쟁을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희생된다"라며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의 사자는 145개국 대사가 모인 곳에서 DPCW를 통과시켜 전쟁 없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우리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는 1만여 명, 전남 순천 동천천변공원에서 3000여 명, 여수 용천 이순신공원에서 1000여 명, 목포 삼학도 공민 내 '경복화합의 숲'에서 1500여 명 등 총 1만 5500여 명이 함께해 평화의 열기를 더했다.



▲25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HWPL 광주전남지부 지체성 이사가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25일 목포 삼학도공원에서 HWPL이 주최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 HWPL 목포지부 회원들이 참석했다.

▲25일 순천 동천수변공원에서 HWPL이 주최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 시민들이 참석했다.

▲25일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행사에서 HWPL 광주전남지부 지체성 이사와 광주전남지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지를 촉구하며 걷고 있다.

### '평화의 걸음' 내디딘 전 세계 시민들... 각 국가 원수 'DPCW 지지' 답신 촉구

'피스레터(Peace Letter)'는 DPCW가 구속력 있는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이 193개 UN회원국 국가원수와 UN대사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HWPL은 지난 174개국에서 630여 회 행사를 통해 DPCW가 UN 결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피스레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피스레터는 올해 3월까지 192개국 국가원수에게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약 20만 명이 참여해 청와대에도 공식 전달됐다.

HWPL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25일 발표한 세계평화선언문과 평화권 기대회를 기념하며 올해 6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피스레터 작성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스레터는 192개국 정상에 이어 정부, 국제기구 관료들에게도 전달된다.

이러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 5월과 6월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피스레터를 작성한 김수인(45) 씨는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안타까운 심정과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손편지 작성에 동참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 지도자들이 DPCW를 꼭 지지하여 UN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답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걷기대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영민 IPYG 부장은 "DPCW는 발표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놀라운 정도로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으며, 전 세계 13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해 피스레터 활동을 하며 DPCW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각국 대통령뿐 아니라 고위 지도자들에게도 피스레터를 발송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낸 피스레터에 답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 걷기를 한다. 평화의 걸음으로 밟는 이 땅은 평화의 세계로 바뀔 것이며, 이는 세계를 바꾸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PCW는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분쟁의 해결', '평화 세계 유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화 교육과 평화 문화 전파를 통해 영원히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HWPL은 기존 국제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 짓기 위해 해외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국제법인 DPCW 10조 38항을 완성해 지난 2016년 공표했다.